

배포 일시				
국토 교통부	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	책임자	과 장	오성익 (044-201-3516)
		담당자	사무관	이혜인 (044-201-3517)
기획 재정부	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	책임자	과 장	이준범 (044-215-7630)
		담당자	사무관	박상현 (044-215-7631)
산업통상 자원부	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진흥과	책임자	과 장	김태우 (044-203-5330)
		담당자	사무관	조기훈 (044-203-5332)
보도일시	<b>※ 행사 종료 이후 (별도 공지) 보도 가능</b>			

## 「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」 발표

### - 연 500억 불 수주, 세계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 목표 -

- 해외 인프라 시장 공략을 위한 「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」을 마련, 8.31일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
- 유망 지역별로 맞춤형 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하고,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여 핵심 프로젝트 수주에 역량 총결집
- 민간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의 전후방 지원 기능 확대, 원전·친환경 수주 활성화 등 연 500억 불 달성 전략 마련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8월 31일(수) 대통령 주재 ‘제7차 비상경제 민생회의’에서 「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.
- 우리나라의 해외 인프라 수주실적은 `10년 연 716억불로 최고점을 달성한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여 연 300억 불 내외에 정체되어 있다.
- 그러나, 최근 고유가에 힘입은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고, 아시아, 중남미 지역의 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등 해외 인프라 시장 확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,

- 국내경제는 ‘3고(高) 위기’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.
- 이에, 정부는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 동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」을 마련하였으며,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 ①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수주 역량 결집

- 중동과 아시아, 중남미 등 유망 지역별로 지역별 수주 특성, 발주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후 차별화된 진출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하여 사업 수주 가능성을 극대화한다.
- 특히, 고유가로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는 중동 지역은 사우디 순방 등 고위급 외교와 함께 대규모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협상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수주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.
- 또한, 과급효과와 규모가 큰 주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프로젝트별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고, 인프라와 콘텐츠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수주도 민관이 함께 적극 발굴한다.

### ② 민간의 주도적 역할 강화

- 민간 인프라 금융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(이하 KIND)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5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상향하여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 인수를 지원하고, 인프라 대출채권을 국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.
- 세계시장을 선도할 선진 인프라 기업 육성을 위해 2천 7백억 원 규모의 신규 R&D 사업을 추진하고 신기술의 상용화를 공공이 선도적으로 지원

하며, 사업관리(PM\*), 기획 설계 등 고부가 영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의 PM 참여 확대, 3D 설계시스템 확산 등을 추진한다.

\* Project Management : 건설 소과정(기획·설계·조달·시공·감리 등) 또는 일부를 관리

### 3 공공의 전후방 지원 확대

□ 선제적으로 사업을 발굴·기획하기 위해 해외건설협회와 KIND 등 각 기관에 산재된 해외발주정보를 통합 제공하고, 주요 발주국의 법률·정책에 대한 한국어 번역 서비스와 함께 법률·세무·금융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(PGII\*) 등 다자 인프라 협력 체제에 적극 참여하고, 연내 한·미 민관 라운드 테이블과 한·중 민관협력 포럼을 개최하는 등 양자간 인프라 협력 네트워크도 활성화한다.

\* 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(PGII)

□ 입찰 단계에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KIND의 도시 인프라 분야의 정부 간 협상(G2G) 지원기능을 강화하고, 인니·베트남·케냐·방글라 등 4개국에서 운영 중인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를 폴란드 등 유망국가에 추가 설치한다.

○ 아울러, 개도국 정부사업에 대한 경협증진자금(EDPF) 금리를 인하(최대 3.5→1.4%)하고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간 연계도 강화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원활한 금융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.

□ 또한, 수주 이후 성공적인 사업 준공까지 해외수주협의회(기재부 1차관 주재)를 통해 분기별 진행상황 점검을 강화하고, 통관, 인허가 절차, 미수금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할 계획이다.

#### 4 원전·친환경 산업 수주 활성화

- 지난 8월 18일 출범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국가별 원전 수주전략을 마련하고, 체코·폴란드 등 주요 원전 발주국에 고위급 외교단을 파견하여 수주를 지원한다.
  - 아울러, 수출입은행은 중동의 주요 에너지·친환경 사업 발주처와 총 500억 불 규모의 기본여신약정을 체결하고, 친환경 사업 지원을 위한 4천억 원 규모의 PIS 펀드\*를 추가 조성하는 등 금융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.
- \* Plant-Infrastructure-Smart-city Fund(플랜트·인프라·스마트시티 펀드)
- 원희룡 장관은 “우리나라는 중동 붐을 일으킨 해외건설 강국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, 해외 기업의 저가 입찰 공세와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위축되어 있었다” 며,
  - “다시 한번 해외 건설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정부와 공공, 민간의 수주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, 모두가 한 팀이 되어 연 500억 불 수주,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함께 뛰겠다” 라고 밝혔다.

※ (별첨)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

**참고 1**
**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**

구 분	분 야	현 행	개 선
수주 역량 결집	진출계획	-	지역별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(연내)
	프로젝트 발굴	기업별 선별적 발굴	민·관 합동 발굴 및 진출 (원팀 코리아)
		인프라 단독	인프라 + 콘텐츠
민간 주도적 역할 강화	KIND 자본금 한도	5천억 원	2조 원 ( +1.5조 원)
	인프라 대출채권 매각대상	국내 금융기관	국내 + 해외 금융기관
	고부가가치 분야	민간 PM 실적 부족 2D 도면 설계	민간 PM 확대 3D 설계시스템
공공 전후방 지원 확대	도시 인프라 분야 G2G 협상	-	KIND G2G 협상 지원
	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	4개소 (인니, 베트남, 케냐, 방글라)	폴란드 등 증설
	경험증진자금 (EDPF) 금리	최대 3.5%	최대 1.4%
원전 · 친환경 수주 활성화	원전 수주계획	-	국가별 원전 수주전략 수립
	친환경·에너지 기본여신약정(F/A)	50억 불	500억 불 (+450억 불)
	PIS 펀드	1.1조 원	1.5조 원(+4천억 원*) *친환경·에너지 분야

## 참고 2

## 해외 인프라 수주 우수사례

### 현황사진



터키 차낙칼레 대교



인니 자카르타 LRT



UAE 바라카 원전



쿠웨이트 자베르 코즈웨이

### 주요내용

- (사업명) 터키 차낙칼레 대교(DL E&C + SK에코플랜트)
- (공사기간/사업규모) '18.4~21.12 / 약 37억불
- (사업개요) 세계 최장 경간 2,023m 왕복 6차선 고속도로(IC 6개소, 현수교 3.6km 포함) 총 88.97km,
- (주요성과) 투자개발형의 모범사례로 우리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터키의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,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구조물 중 하나(5개 중 3개 우리기업 건설)로, 터키내 상징성(승전 기념 등)이 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

- (사업명) 자카르타 LRT 1단계 사업(5.8km, 철도공단 컨소 참여)
- (공사기간/사업규모) '16.12~'19.10 / 4.2억불
- (사업개요) 고가 5.8km, 6개 역사, 차량 16량(8편성)  
\* 한국은 시스템(PM, 전력신호통신 등 1,379억원), 열차(16량, 382억원) 참여
- (주요성과) 민관협력을 통해 사업관리 및 시스템 분야를 일괄수주한 최초의 사례로, 이를통해 우리 기술력을 인정받아 인니 후속 LRT 및 MRT 4단계 참여 발판 마련

- (사업명) UAE 바라카 원전(한전 컨소 \*현대삼성 시공)
- (사업규모) 186억불
- (상업운전) 1('21)·2('22)·3('23)·4('24)
- (사업개요) 5,600MW 규모, 한국형 원자로 모델 (APR1400) 4기
- (주요성과) 세계 6번째 원전수출국 반열, 원자로 냉각재배관 자동용접 등 신공법 최초 적용

- (사업명) 쿠웨이트 자베르 코즈웨이
- (사업개요) 쿠웨이트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 (48km, 메인+도하 링크)으로, 현대+GS 수주('13)~준공('20)
- (주요성과) 우리기업의 풍부한 시공경험 (터키 보스포러스 제3대교, 우간다 진자 교량 등)과 정부간 협력(한-쿠 건설협력추진)을 통해 사업 수주  
⇒ 설계·시공을 동시 진행하는 **패스트트랙 방식** 등을 활용, **세계최장 연륙교**를 건설